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교통사고 부재환자 감소

-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(속칭 나일롱환자)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후 부재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 - 행정제재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주관하고 국토부, 금감원, 손보험회가 참여한 민·관 합동 “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” 점검을 지난 10월부터 추진함.
 -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50일 동안 185개 지자체 및 손보험회와 공동으로 전국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, 제도 시행 후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
- 금감원은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홍보활동과 행정제재 권한을 보유한 지자체의 합동점검 참여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 및 입원기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함.
 -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*이 3.5%로 나타나 제도시행 이전인 상반기 13.7%와 비교해 10.2%p 감소하면서 대폭 개선됨.
 - 합동점검이 실시된 2010년 10월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1인당 입원기간도 평균 5.0일로 전월인 9월의 7.7일과 비교해 크게 감소함.
 -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외출 및 외박 기록대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244개(30.7%)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현장계도를 실시함.
 - *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점검당시 외출 및 외박중인 환자 비율

- 금감원은 합동점검이 보험금 누수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·관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.
 - 2011년 1월부터는 민·관합동 점검결과에서 입원환자의 기록관리 의무사항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.
 - 지하철 동영상광고,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임.

(민·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(나일롱환자) 점검 결과, 금감원, 12/22)